택시 심야운행 중단 결정

metro
메트로 2013년 2월 21일 목요일 제2675호

슈워제네거 "난 늙지 않았다"

한 뼘쯤 더 섹시하고, 섬세해진 그들의 로맨스가 시작된다!

"가끔 내 방에서 잘래?" 담백하고 쿨하게, 캐치볼처럼 어때?

섬세한 문장, 공감가는 대사
드라마에서 다 하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

tvN 인기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소설 출간!

행복하면서도 설레는 연애의 일차원적인 감정이 끝나면
그때부터 진짜 연애가 시작된다
사랑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십대와 달리
삼십대엔 그 사람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별 그 너머의 현실을 잊지 않고 결국은 다시 살아가면서,
언젠가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온다는 것 또한

로맨스가 필요해
정현정, 오승희 지음 / 값 13,000원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멘토

김미경의 독한 코칭

★tvN 스타특강 SHOW 역대 최고 시청률
★tvN 김미경 쇼 화제 방영 중

김미경의 모닝쇼

"아침을 무겁게 여는 지루한 조찬은 가라!
CEO를 위한 Healing&Fun Time!

흔들리는 30대를 위한
언니의 독설
김미경 지음 / 값 13,000원

누구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

응답하라 1997

또 하나의 신드롬! 이제는 소설이다!

tvN 화제의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소설 출간!

화제의 베스트셀러

★시청률 9주 연속 동시간대 1위!
★VOD 다운로드 조회 수 650만 건!
★드라마 OST 음원 차트 1위 석권!
★감독판 DVD 1만 개 선주문 판매 완료!
★2013년 해외 진출 예정!

응답하라 1997
이우정 극본 박이정 소설 / 값 13,000원

지금, 베스트셀러 콘텐츠 100개가 무료! cardbook.com

metro
메트로 2013년 2월 21일 목요일 제2675호 www.metroseoul.co.kr

갤럭시S4 가죽장갑 끼고도 터치!… 두배 빠른 옥타코어칩 장착해 14일 뉴욕서 공개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S4가 다음달 14일 미국 뉴욕에서 공개된다. 제품 출시는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4월부터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개시된다.

갤럭시S4가 출시되면 국내에서는 같은 풀HD 스마트폰들인 LG전자의 옵티머스G 프로 와 팬택의 '베가 넘버6' 와 경쟁한다.

해외에선 애플의 '아이폰5'는 물론이고 세계 최초 풀HD 스마트폰인 HTC의 '버터플라이' 폰 등과 다툰다.

그러나 갤럭시S4는 세계 최초로 옥타코어 칩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져 하드웨어 사양 면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옥타코어 칩은 코어의 개수가 기존의 쿼드코어의 2배인 8개로 이론상 속도도 2배 수준이다.

또 갤럭시S4에 두꺼운 스키장갑을 끼고도 터치가 가능한 '장갑터치' 터치스크린패널을 적용했다. 1㎜ 두께의 가죽 장갑을 끼면 멀티터치까지 쓸 수 있다. 이 기에 삼성디스플레이가 최근 공개한 4.99인치 풀HD 아몰레드 화면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을 뛰어넘어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구축한 시장점유율 30.4%를 뛰어넘는 성과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성훈기자 zen@

세상 속으로… 캠퍼스 속으로… '설레는 두마음'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전국 곳곳이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설렘으로 가득하다. 20일 충남 부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가한 졸업생들이 전통 예복을 입은 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숙명여대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풍선을 흔들며 축하공연을 즐기고 있다. /한성뉴스

<비어(맥주)+탁주> <막걸리+사이다>

'박정희 비탁·막사' 강추메뉴 시대

노무현 막걸리 이어 대통령의 폭탄주·음식도 상품화 봇물

"요즘 '아빠 어디가' 보니? 그거 보다 보면 아이들이랑 캠핑 가고 싶더라. 어디가 좋을까?"

지난 19일 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의 한 술집에 30대 후반의 남성 네 명이 모여 앉았다. 이들은 TV 예능 프로그램처럼 캠핑을 가 보자며 장소를 물색하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목적지로 결정했다. 봉하마을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생활한 곳이다. 이들은 이날 밤 '더불어 사는 세상 주막(더사세 주막)'에서 '봉하 막걸리'를 마시며 노 전 대통령을 일상 속으로 불러냈다.

캠핑 아이디어를 꺼낸 이철순(31)씨는 "일단 그분(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곳에 오지만 무엇보다 막걸리가 맛있다"고 말했다.

◆부산 '바보 주막' 이어 의정부에 '더사세 주막' 오픈

'더사세 주막'은 노 전 대통령 지지자인 김병립(48)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대표일꾼을 지낸 배우 명계남씨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다.

더사세 주막처럼 '봉하 막걸리'를 마실 수 있는 곳은 부산에도 있다. '바보주막'이라는 이름으로 3곳이 성업 중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기념사업이 생가·기념관·박물관 등 유적지 중심에서 음식·술 등으로 옮아가고 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경북 구미시와 문경시는 이미 대통령 문학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구미시는 2009년 7월부터 박 전 대통령 생가 인근에 1960~70년대 서민들의 보릿고개 주식이던 보리개떡, 보리밥 감주 두부 등을 맛볼 수 있는 '보릿고개 체험장'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박 전 대통령을 되돌아보도록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문경시도 다음달 2일 박 전 대통령이 하숙을 했던 문경읍 내 청운각 맞은편에 '추억의 대통령 음식점'을 개장한다. 문경시는 박 전 대통령이 즐긴 칼국수나 시래기+쇠고기 국밥 등 음식 6종과 막걸리 1종의 표준 조리법을 개발, 전수에 나섰다.

◆문경시 '박정희 음식점' 문 열어

박 전 대통령이 즐긴 막걸리 폭탄주도 메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비탁'(비어+탁주)은 막걸리 한 말(18L)에 맥주(비어) 2병을 섞고, '막사'(막걸리+사이다)는 막걸리 1되(1.8L)에 사이다 1병을 섞어 만든 게 '정석'으로 통한다.

두 전직 대통령을 내세운 이들 음식점은 경기보다 정치적인 변화에 더 민감하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후 체험장을 찾는 방문객이 하루 평균 1500여 명에서 최근 2500여 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의 '친구'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했던 김씨가 운영하는 더사세 주막은 지난해 대선 후 손님이 크게 줄었다.

음식점의 전국 프랜차이즈화도 추진 중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미 타 지역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 메뉴가 통방식으로도 손색이 없어 체인 사업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봉하 막걸리'를 공급하는 재단법인 봉하마을 관계자 역시 "올 하반기쯤 봉하마을에서 기른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이 윤곽을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유리기자 grace1@metroseoul.co.kr

식품값 인상 칼댄다

남양유업·오리온 등 10여곳 직권조사… 불공정 행위 대형마트도 압박

북한 핵도발 감시 '조기경보기 이륙'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군의 대북 감시태세가 강화된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가 20일 오후 부산 김해공항을 이륙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군의 핵심 장비 전력인 피스아이는 24시간 내내 한반도 전역을 물샐 틈 없이 감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체 10여 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관련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다. CJ제일제당, 오리온, 남양유업, 해태제과, 대상, 동서식품, 풀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식품업계를 상대로 대규모 조사를 벌이는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다.

공정위의 칼끝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을지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관계자들도 귀추를 주목하는 상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각 업체에 공문을 보내 18일부터 21일까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대형마트의 가격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 공정위는 올해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와 광고비 등의 부담을 전가하는지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으론 최근 잇따른 제품 가격 인상과 관련, 공정위가 식품업계의 가격 담합 여부를 함께 조사할 가능성도 크다. 가격 인상 시기가 비슷한 데다 인상폭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최근 불거진 남양유업의 대리점 제품 강매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어떤 수위로 조사를 벌일지 주목된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달아 식품 가격을 올리고 있어 정부가 압박성 조사에 나선 게 아닐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에도 줄줄이 오르는 가공식품의 관련 의혹을 단속하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 바 있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학부모 동의없이 휴원땐 어린이집 아예 폐쇄조치

방학기간에 멋대로 휴원하는 어린이집은 최대 시설폐쇄 명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어린이집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휴원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하지 않도록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20일 협조를 요청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는 어린이집은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년, 2차 위반은 시설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입소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은 최대 6개월 운영정지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는다.

위반 신고는 보건복지 콜센터(129), 어린이집 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할 수 있다. /장윤희기자

도시가스 요금 4.4% 인상

도시가스 요금이 4%가량 오른다. 지식경제부는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4%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용도별 인상률은 주택용(난방용·취사용) 4.3%, 산업용 4.6%, 일반용(영업용1) 4.1%, 일반용(영업용2) 4.3%다.

지경부는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 인상을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 설명했다. /박상준기자

경솔한 입 「법정구속」

"법정서도 무책임한 언행" 조현오 前청장 징역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7)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성호 판사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다"며 "경솔하게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법정에서도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했다"고 예상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판사는 탤런트 유유선의 남편으로 밝혀져 화제를 모았다. /김유진기자

친구 성매매 시켜 대학 다닌 '순악질 커플'

3억 뜯어내 고급차 굴려… 손톱 뽑고 야구방망이 폭행도

고교 1학년 때 가출한 친구에게 거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3년간 성매매를 시킨 친구와 그 친구의 조폭 남자친구가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남 영암 거점의 조직원 곽모(25)씨와 동거녀인 대학생 정모(22)씨를 관련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곽씨와 정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21)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하루에 30만~50만원씩 모두 3억여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09년 친구 A씨가 고등학교를 중퇴하려고 가출하자 광주광역시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 살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터넷 조건만남으로 번 돈을 월세로 내면 남은 돈으로 적금도 들어주겠다"며 A씨를 성매매로 내몰았다. 또 A씨가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하자 "아이를 키워줄 테니 매일 40만원을 달라"며 성매매를 더욱 강요했다.

또 A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의 위치찾기서비스(아이지키미)에 가입해 실시간 감시까지 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손톱을 뽑거나 야구방망이로 때리기까지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간 대전·대구·포항 등 지방을 돌아다니며 번 화대를 곽씨 일당에게 꼬박꼬박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곽씨는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3억여 원을 대출금 상환이나 고급 승용차 구입에 쓰고 동거녀 정씨의 대학 등록금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A씨가 2010년 아이를 낳은 직후에도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짐승보다 못한 잔혹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3년간 성매매를 강요해 3억여 원을 뜯어낸 곽모씨가 1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0명중 3명 '정상체중 비만'

허리둘레 男 90㎝·女 85㎝ 이상이면 일단 의심

정상 체중에 속하는 성인 가운데서도 10명 중 3명은 사실 비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내과 김미경 교수팀은 2009~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질량지수가 정상인 사람의 32%가 과체중 이상의 체지방률을 가진 '정상체중 비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측정 지수는 흔히 체질량지수인 BMI를 사용하는데 자신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하지만 체중 값으로는 지방과 근육 비중을 구분하지 못해 비만 여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정상체중이면서도 내장비만인지 판단하려면 허리둘레를 재면 손쉽게 알 수 있다. 허리둘레가 남자의 경우 90㎝ 이상, 여자의 경우 85㎝ 이상이면 복부비만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부위는 말랐는데 배만 유독 볼록 나왔다면 역시 정상체중 비만일 수 있다.

/김민지기자

15만3000대 중 69% 정상운행 비상총회에 참가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해산하던 중 운행 중인 택시를 막아선 뒤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심야운행 중단 결정

구체적 시기는 추후 논의

택시업계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2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 재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택시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일을 협의해 야간 택시 운행중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1시 현재 수도권과 중부권 8개 광역 시도에서 운행을 중단한 택시는 15만3246대 중 4만7880대(31.2%)였다고 밝혔다.

/배동호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전세대란 묘수, 서울 접경지구 역세권 단지 눈여겨 봐야

서울 동일 평형 대비 4,000만~1억 저렴 … 전세기간 중 분양전환 가능

설 연휴 이후 강남발 전세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역세권 아파트 전세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세금 인상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전세값이 싼 외곽지역으로 이사하려는 전세입주자들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

특히 고양 삼송지구, 남양주 별내신도시, 용인시 등의 역세권 단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중 고양 삼송지구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5분대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인근 대곡역에서 환승하면 서울역, 일산, 인천공항까지도 빠른시간에 연결된다.

또한 올해 원흥역과 GTX가 착공되면 강남권까지 2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

이 곳에서 눈길을 끄는 단지는 삼송동원로얄듀크. 계약취소분 등 잔여 세대에 대해 2년 기간의 전세를 주고 있다.

임주보증금은 84㎡형 1억 7,000만원, 110㎡형 1억9,000만원, 116㎡형 2억원이다.

인근의 서울 은평구 진관동 지역에 비해 6천만원에서 1억원, 서울의 주요한 주거지역 아파트 전세값에 비해서는 1억원 이상 싼 값이다.

이처럼 싼 값에 2년 동안 새집에서 내 집처럼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 등이 확인되면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분양받을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통일로IC도 차로 1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북한산 조망, 단지주변으로 실개천이 흐르는 근린공원 등 자연환경도 완벽하단 평가다.

한편, 부동산업계에서는 삼송권이 고양시 중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말한다.

신세계그룹이 건설하는 대규모 복합 쇼핑몰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들어서 수도권 서북부의 유통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파트값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본다.

<분양문의 031-711-0002>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책임총리제 권력 균점 아니다"

정홍원 인사청문회 첫날 "유신은 반민주적인 조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신헌법에 대해 "헌법 가치를 훼손한 반민주적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총리로서 각료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책임총리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균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잘 보좌해 각 부처를 지휘·감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유신헌법과 5.16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정 후보자는 "교과서에 5.16이 군사정변으로 기술돼 있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둘째 날인 21일에는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 활동에 대한 평가를, 셋째 날인 22일에는 변호사 사절 수임료와 아들 병역 의혹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배동호기자

美 국적 버리기 힘드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CIA경력' 김종훈 시민권 포기 美정부서 허가 안할수도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종훈 후보자의 국적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07~2011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의 미국 시민권 포기를 미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20일 제기됐다.

미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직책을 맡기기 전에 일반적으로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김 후보자의 시민권 포기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통 시민권 포기 심사는 2~3개월가량 걸리는데 CIA 활동 등 민감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리거나 시민권 포기 자체를 부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장관에 기용되더라도 상당 기간 이중국적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8일 우리나라 법무부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해 관보에 국적회복자로 기재돼 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아직 미국 정부에 시민권 포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1998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배동호기자 elevbdh@metroseoul.co.kr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고개숙여 사과"

허태열(사진)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허 내정자는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1999년 논문 작성 당시 논문작성 방법이나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연구윤리 기준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점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사죄했다.

허 내정자는 당시 건국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내면서 이전에 발표된 한 사립대 교수의 논문을 복사 수준으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2006년 교과부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기 전 행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을 보강하고자 공부하게 됐다"며 "논문 작성 과정에 시간적 제약 등으로 세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배동호기자

"전관 후보자들 고액 봉급자로 돌아가라"

정의화(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공직 퇴임 후 전관예우 혜택을 받은 새 정부 내각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 조용히 잘 판단해 고액 봉급자로 돌아가는 게 어떨지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5선의 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런 분들은 조용히 (고액을) 받고 살았으면 지나 국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지나갈 텐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분들이 새삼스럽게 출세까지 하겠다고 하니 국민에게 굉장한 위화감을 줄 수 있고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실망하지 않겠느냐"며 "이분들이 국민을 우습게 알거나 국회를 졸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종훈기자 glass100@

성북구 교복 알뜰나눔장터

서울 성북구는 21·22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청사 1층 다목적홀에서 '교복물려주기 알뜰나눔장터'를 연다.

새 학기를 앞두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나눔과 절약정신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장터에는 관내 15개 중·고교에서 기증한 1000여 벌의 교복이 판매된다.

교복 한 벌을 2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상·하의나 조끼, 셔츠만 따로 원할 경우 한 종당 1000원에 살 수 있다.

관내 세탁업소와 청소년지도 봉사회 회원들이 나서서 기증 교복의 세탁과 수선을 완료했으며 수익금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된다.

방일 한국인 > 방한 일본인

엔저 효과에 2년 만에 역전… 여행 비수기 영향도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국을 찾은 일본인보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더 많아졌다.

20일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달 방일 한국인은 23만4500명, 방한 일본인은 20만6474명이었다. 일본에 간 한국인이 2만8026명 더 많았다. 방일 한국인이 방한 일본인 수를 웃돈 것은 2011년 2월 이후 1년11개월 만이다.

일본정부관광국은 "엔고 원저 경향이 완화되면서 한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방일 수요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지난해 8월에만 해도 한 달간 34만6950명에 달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방한 일본인(30만8852명)이 방일 한국인(14만5700명)의 두 배를 넘었다.

하지만 일본인 관광객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일 관계 악화로 감소하고 한국인 관광객은 급증, 결국 지난달 양측이 역전됐다. 특히 방일 한국인이 크게 늘어난 것은 엔화 가치 하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월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지난해 1월(17만3397명)보다 35.2% 늘어났다. 반면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지난해 1월(24만4370명)보다 15.5% 감소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방한 일본인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 "1~3월이 일본인 해외여행 비수기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조선비기자 [illegible]

미·중 해킹전쟁 터지나

미 "사이버 공격에 벌금부과·교역제한 검토"… 중 "우리 의심 말라"

사이버 세상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양국 모두 상대방에게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해킹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AP통신은 미 정부가 중국 등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에 벌금 부과, 교역 제한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사이버공격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 컴퓨터보안업체 맨디언트는 중국발 해킹 공격의 증거를 추적한 결과, '유닛 61398'로 불리는 중국 인민해방군 부대가 진원지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이라면 중국군 고위층의 승인으로 이뤄진 공격임을 뒷받침하는 셈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낸 마이클 처토프는 "연센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공개적으로 불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애플의 일부 직원 컴퓨터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소식통은 이번에 애플을 공격한 악성코드가 최근 페이스북을 포함해 미국 내 주요 IT업체들을 공격한 것과 같은 악성코드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망, 수도시설, 금융기관 등이 마비되는 공황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 훙레이 대변인은 "중국은 해킹 행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제정해왔고 온라인 해커들을 엄단하고 있다"며 "오히려 미국 해커들에게 자국 사이트가 공격당해 해커들에게 이용당했다"고 되받아쳤다.

훙 대변인은 이어 중국이 지난해 7만3000개의 해외 IP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이 가운데 미국에서 온 것이 가장 많았다는 통계 수치까지 제시했다.

한편 이날 블룸버그는 최근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등 40여 개 미국 업체에 대한 해커 공격은 중국이 아닌 동유럽 해커 집단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today metro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기내 복도서 '볼일' 태연한 중국인
- 한여름 칠레 빙하·고래투어 인기

프랑스 니스 카니발 팡파르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열린 제129회 니스 카니발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오른쪽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형상을 실은 장식 수레가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올해 카니발의 주제는 '요리축제의 왕'이다. 니스 카니발은 다음달 6일까지 열린다. /로이터 연합뉴스

"다케시마 탐내다 센카쿠 잃을라"

日정부 차관급 파견에 아사히신문 공식 반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관료를 파견하지 마라. 자칫하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전략에 근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일본 유력지인 아사히신문이 20일자 사설에서 이같이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른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처음 나온 일본 언론의 반대 의견이다.

신문은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같은 해를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이 시작된 해'로 보고 있고, 독도를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며 "아베 신조 총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나 다른 장관들이 다케시마의 날(22일) 사흘 뒤에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는 점을 고려해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으면서 (차관급) 정무관을 보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 일본의 대중국 외교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로 한·일 관계가 틀어지면 센카쿠를 놓고 분쟁 중인 중국에 대응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문은 "총리는 지지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한·일 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이해득실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국명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등록·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국장 직대	김한길
서울광고팀	(02)721-6851 3
부산광고팀	(051)852-2800
독자센터	(02)721-9412

2002년 5월 31일 창간 2002.5.28 등록번호 등록가-00007

연금복권520 제86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1조	590691
		3조	570052
2등	1억원	1등의 앞뒤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671270
4등	100만원	각조	11656
5등	2만원	각조	853
6등	2000원	각조	80, 70
7등	1000원	각조	8, 3

2월 28일
오픈예정

대한민국 TOP CLASS를 선보이다

6,207세대 동탄2신도시 최대 규모

프리미엄 EXPO

경부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에서 제2외곽순환도로, GTX(추진中)까지 대한민국 Top Class 신도시-
동탄2신도시에서 최대 규모,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를 만나는 기회가 열립니다

2월, 동탄2신도시 3차 동시분양을 기대하십시오!

7개사 6,207세대 동탄2신도시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이 펼쳐집니다

Nikkei (일본) 11468.28 (+55.90)
Hang Seng (홍콩) 23307.41 (+163.50)
Shanghai (중국) 2397.18 (+14.27)
Dow Jones (미국) 14035.67 (+53.91)

EXCHANGE RATE

달러	1078.50
엔(100)	1155.33
유로	1446.92
위안	172.78

삼성맨·현대맨 퇴사후 '대박'

대기업 출신이 창업한 상장사 NHN등 118곳 달해

창업 성공하려면 먼저 대기업에 들어가라?

1980년 이후 삼성·LG·현대차·대우·SK그룹 출신 인재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를 무려 118곳이나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최고경영자(CEO)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는 재벌그룹 출신 기업인의 창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코스피 기업으로는 인터넷업체 NHN 등 8개사였다. 나머지 110개사는 코스닥 기업이었다.

삼성SDS 출신인 이해진 이사회 의장이 창업한 NHN은 19일 기준 시가총액(약 12조원)이 코스피 17위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코스닥에서는 삼성전자 출신의 김종구 사장이 창업한 IT(정보기술) 모바일회사 파트론이 시가총액 9436억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박상준기자 [illegible]

'전차'가 끄는 코스피… 2000 회복

코스피가 한 달 만에 2000선을 회복했다.

20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38.81포인트(1.95%) 오른 2024.6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도 3.20포인트(0.61%) 오른 525.69로 장을 종료했다.

코스피의 2000선 탈환은 지난달 14일 2007.04에 종가를 형성한 후 한 달여 만이다.

코스피 상승은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주도했다. 전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구글의 주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800달러를 넘기면서 국내 전기전자업체가 주목받았다. 또 엔-달러 환율이 94엔대에서 93엔대로 하락한 것은 국내 자동차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 /김재현기자

e북 넘기는 소리 커지나

예스24·알라딘의 단말기 크레마 이어 교보문고 회원제 서비스 '샘' 출시

월 1만9000원에 5권 독서
기존 낱권 구매보다 저렴
전자책 시장 활성화 기대

교보문고가 회원제 e북 서비스 샘(sam)을 출시했다. 앞서 e북 단말기 크레마 터치를 내놓은 예스24, 알라딘과 전자책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도서 유통의 온·오프라인 강자가 새로운 e북 단말기와 서비스로 맞붙으면서 전자책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20일 교보문고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샘 론칭 컨퍼런스를 갖고 국내 처음으로 회원제 e북 서비스를 선보였다. 샘은 독자들이 교보문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한 달에 1만9000원만 내면 전자책 단말기는 물론 매달 전자책 5권을 읽을 수 있다.

기존의 e북 콘텐츠를 낱권으로 구매하는 방식과 달리 회원제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회원제로 전환하면서 전자책 가격이 평균 3000원대로 크게 낮아졌다. 국내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허정도 교보문고 대표는 "전자책이 유용한 서비스인데도 빛을 못 보고 있다"면서 "샘의 출시가 고객, 서점, 출판사 모두 만족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의 이 같은 자신감은 샘 서비스가 기존 e북과 차별화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샘에는 전문가나 출판사 또는 작가가 직접 책을 추천해주는 북큐레이션 서비스, 사용자의 독서 활동을 관리해주는 '독서노트' 서비스, 높은 해상도를 가진 단말기 등이 제공된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올해 13만 회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보문고의 공세에 예스24와 알라딘은 지난해 출시된 크레마 터치에 전자책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플러스 에디션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먼저 예스24는 크레마 터치 100년의 걸작 '박경리 조정래 에디션'을 선보였다. 토지, 태백산맥, 한강을 크레마 터치에 담아 26만8000원에 판매한다. 종이책 정가 50만6000원보다 24만원가량 저렴하다. 여기에 12만9000원 정가의 크레마 터치까지 패키지에 포함됐다.

알라딘도 크레마 터치와 살림지식총서를 함께 구성한 '살림 지식 Plus 에디션'을 출시했다. 콘텐츠 정가 대비로 보면 40% 이상 할인된 19만9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1권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7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김민서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꿈의 SUV' 올 뉴 레인지로버 출시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20일 16년 만에 풀 체인지된 플래그십 SUV '올 뉴 레인지로버'를 출시했다. 100% 알루미늄 모노코크 차체를 적용해 기존 차체보다 중량을 420㎏ 줄였다. 이에 따라 연비는 3.0ℓ 디젤 엔진 모델 기준 9% 향상된 10.7㎞/ℓ(복합연비)다. 1억3150만~1억9[illegible]만원.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제공

성인병 집중보장…중년의 필수품

중년에 발생하기 쉬운 성인병을 집중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있어 화제다.

차티스손해보험(www.chartis.co.kr)의 '큰병이기는보험Ⅳ'는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 중년에 걱정되는 큰 병에 대한 다양한 보장을 필요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2000만원을 지급한다(암의 경우 가입 후 91일부터 적용,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은 보장 금액의 20% 지급). 또한 상해, 질병 입원일당, 방사선치료비, 수술비 등 다양한 선택계약이 가능하다.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을 보장받는 기본계약에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까지 지원되는 선택계약 플랜 구성 시 월 보험료는 40세 남자의 경우 1만7160원, 여자는 2만5260원으로 15세에서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80세까지 연장 가능. 문의 080-432-0162, www.chartis.co.kr /박상준기자

Interview

연봉 1억, '보험퀸'에게 듣는다!

차티스손해보험 7년차 TM 이용희씨에게 듣는 연령별, 건강별 [보험선택의 기준]

'올해의 영업실적왕' 5회 비법공개
20~60대 연령층 1:1 상담전화 통해 연령에 따라 건강고민 한 눈에 보여

차티스손해보험의 7년차 TM 이용희씨(35세) '올해의 영업실적왕'을 5회나 기록한 베테랑 TM이다. 평소 활발하고 싹싹한 성격이 고객 전화상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하루 전화상담은 무려 100여 통.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때로는 언니, 우리 엄마, 어머님 같아 공감 가는 얘기들이 많다는 그녀. 다년간 전화상담을 통한 다양한 고객들의 목소리와 그녀만의 연령별, 건강별 보험선택 기준을 들어본다.

40~50대 큰병 대비가 철저해야죠

주로 40~50대 고객분들은 자영업자 분들이나 직장인들, 주부님들이 많으세요. 남편이나 아내 건강 걱정하시며 꼼꼼하게 보장을 들어보시구요. 하나의 상품을 문의하시다가 여러 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또 요즘은 보험료 부담 때문인지 다른 보험사 상품들과 조목조목 비교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는 수화기 너머로 든든해 하시는 고객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보람도 느끼고요.

〈큰병이기는보험Ⅳ〉으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대비

40~50대 고객분들께는 〈큰병이기는보험Ⅳ〉을 권해 드려요.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큰병연 선택계약으로 진단비를 각각 보장해 드려요. 남자 분들의 경우엔 잦은 야근이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큰병 대비를 본인들도 원하세요. 주로 남자분들은 본인 건강 걱정은 물론이고 혹시나 큰일 생겨 가족만 남겨질까봐 걱정 많이 하시죠. 그래서 40~50대 가장이라면 혹시나 모를 큰일에도 철저하게 대비하시라고 선택계약으로 사망보장도 함께 설계해 드려요.

불경기 탓, 보장도 좋지만 실속 있는 보험료 찾는 분 늘어

최근 불황 탓에 아파도 수술을 미루거나 그냥 참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가 보도된 후 상담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땐 보험료 한 푼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암 같은 큰병을 보장하는 보험들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거든요. 하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실용가인 요즘에 〈큰병이기는보험Ⅳ〉가 사랑받는 것 같아요.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테 크기 따로 없다는 말씀들 많이 하셔요.

중년 건강대비 전화상담!
1577-6428

[illegible] •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상해사망은 최대 90세까지(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진단비는 최대80세까지)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50~60대 치매 대비 하셔야죠

주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연세쯤 되신 분들은 치매 걱정이 제일 많으세요. 특히 주변 지인분들 통해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던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암 같은 큰병 고민도 함께 하시죠.

치매, 큰병 대비도 〈명품부모님보험〉으로

그래서 50~60대에는 〈명품부모님보험〉을 추천해 드려요. 우리 부모님들 가장 걱정 많으신 치매 고민! 그게 다 가족들이 짊어져야 할 간병비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명품부모님보험〉은 선택 계약으로 치매 간병비를 보장해 드리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구요.(중증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 후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한) 여기에 부모님들 또 다른 큰병걱정 많으시잖아요. 〈명품부모님보험〉을 통해 선택계약으로 암은 물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꼼꼼하게 챙겨드리니까 큰병 대비도 같이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나이들어 약해지는 눈, 귀, 관련질환으로 인한 수술비를 선택계약인 시청각질환수술비로 챙겨 드리죠.

따로따로 가입 마시고 한번에 보장받으세요

최근에 치매와 관련해서 뉴스나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치매도 보장하면서 또 다른 것들도 보장하는지. 그런데 말씀 나눠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암 보험, 사망보험, 노년질환 보험을 따로따로 가입하고 계시더라고요. 따로 가입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보험료도 비싸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명품부모님보험〉 하나면 모두 다 보장 받을 수 있어요. 한번에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니까 보험료도 그만큼 실속 있고요. 또 연세 때문에 가입 안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셔도 꾸준히 관리만 잘 하셨다면 상담 후 가입이 가능하니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가입 부담없이 친절상담
1577-6427

[illegible] •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치매간병비는 상해사망은 최대90세까지(재가입시 [illegible] 수술비, 암 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질병사망은 최대 8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용희씨가 지금껏 차티스 TM으로서 전화상담을 한 고객수만 따져 본다면 2만여 통이 넘는다. 고객들과 상담전화를 하다보면, 현명 같이 자신의 건강대비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엄마나 아버지, 시부모님 건강을 챙기는 모습에 자신도 왠지 모를 뿌듯함이 생긴다는 그녀다.

연령이나 건강별로 준비해야하는 건강대비

이제는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어느 연령대인지 감이 온다는 이용희씨. 고객들과의 1:1 전화상담을 통해 연령대별, 건강별 고민들과 그 대비책이 한눈에 그려지는 베테랑이다. 그녀는 고객분들의 건강 고민이 제각각 다른 듯 해도, 연령이나 건강별로 원하시는 보장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한다. 그만큼 각 연령별로 준비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대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과 건강대비 상담에 매진하는 그녀가 늘 당부하는 한 마디가 있다고 한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보험가입에 대한 강요나 아무런 부담주지 않으니 부담없이 전화부터 하세요. 저희들이 아는 한 연령대에 건강에 꼭 맞는 건강대비책을 많이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오늘도 그녀는 1:1 전화상담을 통해 때론 친구처럼, 때론 싹싹한 며느리처럼 조곤조곤 차티스의 건강대비책을 제시한다.

$800 애플의 과거 구글의 현재

글로벌 IT의 두 공룡 주가 희비
애플 몇달새 35% 추락 450달러
구글 일년간 30% 올라 '최고가'

글로벌 IT업계에서 자웅을 겨루고 있는 구글과 애플의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세계 최대 인터넷검색업체 구글은 19일(현지시간)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800달러를 넘었지만 애플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450달러대까지 추락했다.

애플의 주가는 굴욕이나 다름없다. 아이폰5 출시 직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9월 21일의 705.07달러보다 35%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구글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직전 거래일보다 13.96달러(1.76%) 오른 806.85달러에 마감했다. 2007년 10월 700달러를 돌파한 지 5년4개월 만에 800달러 고지를 점령했다.

이날 오전 장 중에 800달러를 돌파한 구글의 주가는 올해 초보다 13% 상승했고 최근 1년간 30% 이상 올랐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주가 상승이 광고 수익 증가와 실적 호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조사업체인 컴스코어에 따르면 미국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67%에 달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 업체를 압도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4분기에 고정 비용을 제외한 주당 순익이 10.65달러를 기록, 시장의 예측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다.

애플의 주가 움직임은 구글과 대조적이다. 미국 경제 전문 방송인 CNBC는 공교롭게도 구글의 주가가 최근 3개월간 20% 상승하는 동안 애플의 주가는 19% 가까이 하락했다고 전했다.

애플의 주가는 이날 직전 거래일보다 17센트(0.04%) 떨어진 459.99달러를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애플은 이날 해킹을 당했다고 발표해 철통 보안 신화마저 무너졌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캘리포니아 오렌지 '상큼한 할인'
롯데마트가 20일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점에서 캘리포니아 네이블 오렌지(10~15입) 박스를 정상가보다 20%가량 저렴한 1만원에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KFC 주부파트너 채용설명회

27일 전국 14개 매장서 면접

KFC가 주부파트너 모집을 위해 27일 전국적으로 '주부파트너 채용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근무 희망자는 서울·부산·대전·대구·인천 등 전국 14개 대표 매장을 방문해 매장 투어 및 현장 면접을 거쳐 당일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행사 참가자들은 매장 투어를 통해 메인홀을 비롯한 주방, 직원 휴게공간, 카운터 등 KFC의 매장 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하는 한편 메뉴 조리 과정과 직원들의 고객 응대 부분도 현장 투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KFC에서 현재 근무 중인 주부파트너는 전국적으로 약 250여 명이며 자유로운 근무시간 조정과 매니저로서의 진급 기회 제공, 각종 사회보장보험을 비롯해 사이버대학 위학금을 지원하는 등 복리후생 제도를 갖추고 있다.

분양단신

천안 'e편한세상 스마일시티'

대림산업과 삼호는 22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일원의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E-2블럭에 'e편한세상 스마일시티'를 분양한다.

e편한세상 스마일시티는 지하 1층, 지상 17~26층, 12개동 규모로 건설된다. 전용면적은 51~84㎡로, 전체 1024 가구가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문의 041)567-3335

양우 '내안애 펠리스' 수요 탄탄

초역세권 프리미엄과 신흥대 학생들의 수요로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양우 '내안애 펠리스' 도시형생활주택이 145세대 중 회사 보유분을 분양 중이다. 지하철 1호선 망월사(신흥대)역과 신흥대가 바로 앞에 있어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원이 가능하며 총 분양가는 9600만원이며 융자는 50%(무이자)까지 된다.

문의 031)585-0314

재직 기간 짧다면 '스피드론'

신용도는 좋지만 재직 기간이 짧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직장인에게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스피드론' 상품이 인기다.

스피드론은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1000만원까지 즉시 송금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앱으로 조회 기록 없는 한도 조회·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더 큰 한도가 필요하다면 은행 수준 금리로 6000만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ipsloan.com)나 전화(1600-8588)를 이용하면 된다.

기다림의 맛, 더치커피

찬물서 4~12시간 추출·숙성 깊은풍미 더해 '커피계 와인'

찬물에서 추출한 커피를 일컫는 '더치커피'가 최근 '커피의 와인'이라 불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커피는 높은 압력과 뜨거운 물에서 추출해 마시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찬물에서 4~12시간 동안 천천히 추출·숙성하면 커피 본연의 풍미가 깊어지고 신선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강조돼 더치커피 마니아들이 늘고 있다.

커피음료를 내놓는 식품업체나 커피전문점들은 더치커피를 상품화하는 데 분주하다. 최근 빙그레는 원두 본연의 맛을 살린 '더치 아메리카노 산타페'와 부드러운 우유가 어우러진 '더치 라떼 산타페' 2종을 출시했다. 롯데칠성음료에서는 깔끔하고 부드러운 끝 맛을 강조한 '더치 블랙'을 판매하고 있다.

엔제리너스의 더치커피 추출 모습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으로는 엔제리너스가 유일하게 프리미엄 한정

켄세점 이어 카페서도 선봬 프리미엄 내세워 인기몰이

메뉴로 '더치 아메리카노'와 '더치 라떼'를 판매하고 있다. 오랜 시간 한 방울 한 방울 우려내 하루 10여 명가량의 한정된 고객들만 즐길 수 있는 커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격도 일반 아메리카노(3900원)보다 비싼 5000~6000원에 팔린다.

더치커피를 직접 만들어 마시려는 마니아들이 늘면서 원목가구 제조업체인 올브레드이치에서는 가정에서도 추출해 마실 수 있는 더치 커피머신을 내놨다. 커피이코게에서도 더치커피 기구를 선보였고 지난 설 명절엔 더치커피 선물세트를 출시해 대중화하고 있다.

/전효순기자 hyjeon@metroseoul.co.kr

'맥모닝 알람 앱'서 커피쿠폰

맥도날드가 스마트폰족들을 위한 색다른 모바일 알람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

매일 오전 4시에서 10시 사이 알람 기능 설정을 할 수 있는 '맥모닝 알람 앱'을 개발해 이용자들에게 무료 커피 쿠폰을 나눠준다.

알람을 끄기 위해 간단한 미션 게임을 수행하면 즉석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증정. 알람 설정 2시간 이내 매장 방문 시 무료로 프리미엄 로스트 원두커피를 제공한다. 문의 www.mcdonalds.co.kr

어린이집 첫날 기 살리는 3종

물티슈·양치세트·낮잠이불 옥션서 입학 준비물 기획전

온라인 쇼핑몰 옥션에서 물티슈가 가장 잘 팔리는 때는 한 여름도 아니고 바로 3월이다. 어린이집 취학 시즌이라서다. 1년 동안 판매되는 물티슈의 12%가량이 이때 팔려나간다.

그뿐만 아니다. 물티슈를 비롯해 칫솔·치약 양치컵 세트, 낮잠이불이 어린이집 입학 준비물 '3종 세트'라 불린다.

부모들이 준비할 제품이 많아지다 보니 '어린이집 입학 준비물 기획전'까지 열리고 있다. 3종 세트 외에 젓가락, 네임스티커, 스킨케어 제품 등을 최대 67% 싸게 준비했다.

아이 개인 용품에 붙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네임스티커 세트는 40% 할인한 1800원, 뽀로로 양치컵 세트는 20% 할인한 3400원, 요리체험학습 등에 사용하는 '킨더스펠 앞치마'는 15% 할인한 3만2300원 등에 판다.

물티슈는 매수 대비 가격이 저렴한 상품이 인기다. '네추럴 블라썸 100매 물티슈(990원)'의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하루 평균 1만 개씩 팔려나가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낮잠 잘 때 사용하는 개인 이불은 뒤척임이 심한 아이를 위한 침낭 형태의 일체형 이불까지 등장했다. /전효순기자

아기 열날땐 '포카리스웨트' 얌얌

동아오츠카 "안심하세요"

동아오츠카의 포카리스웨트가 아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온음료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건강한 아기는 괜찮지만 체온이 올라 땀을 흘릴 때나 아기가 열이 날 때, 배탈이 났을 때 등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전해질 보급이 필요하므로 포카리스웨트를 마시게 하는 게 좋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무향신, 무색소, 무보존료 제품으로 아기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것. 전해질 흡수를 높이는 적당량의 당분이 들어 있어 끓인 물만으로 보급되지 않는 수분과 전해질을 물보다 빨리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강조했다.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 김규준 BM은 "포카리스웨트는 아기가 마시고 싶어하는 만큼 마시게 해도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제품"이라며 "특히 분말형 포카리스웨트는 휴대가 간편해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며 젖병에 탈 수 있어 아기를 둔 주부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전효순기자

'자연박 옴므' 서포터즈 모집

CNP자연박화장품이 다음달 3일까지 '자연박 옴므'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남성 블로거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선발된 서포터즈는 매월 자연박 화장품의 베스트 상품 및 신상품 테스트, 리뷰와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 우수 서포터즈 3명에게는 총 70만원 상당의 자연박화장품 상품권을 증정한다.

"그것만 발랐을 뿐인데…" 생얼 미녀들의 예쁜 거짓말

BB 지고 CC 뜬다

최근 수년간 화장품업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누려온 비비(BB)크림의 열풍이 세해 씨씨(CC)크림으로 옮겨가고 있다.

20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올 초부터 명품 브랜드에서 로드숍 브랜드까지 앞다퉈 CC크림 신제품을 내놓는 중이다.

토니모리의 루미너스 순수광채 씨씨크림을 시작으로 비닐라코 '잇 래디언트 CC크림', LG생활건강 오휘 '컬러 컨트롤 크림', 활존 '알벤트로스 워터풀 CC크림', 네이처리퍼블릭 '슈퍼 오리진 CC크림 SPF30 PA++' 등이 모두 지난달 출시된 제품들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BB크림이 큰 인기를 끌었다. BB는 '블레미시 밤(Blemish Balm)'의 약자로 원래 독일에서 피부과 치료 후 피부재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됐다.

CC크림은 기존의 비비크림에 수분 공급·주름 개선 등 스킨케어 기능을 강화해 본래 피부색보다 더 밝고 화사한 톤을 연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CC는 피부색을 조절해 준다는 뜻의 '컬러 컨트롤(Color Control)'에서 '컬러 체인지(Color Change)', '컴플리트 커렉션(Complete Correction)'까지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메이크업 단계 줄여줘 간편

CC크림의 인기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외에도 간편함을 추구하는 최근 메이크업 트렌드와 맞물려 더욱 치솟고 있다. 비닐라코 홍보팀의 최현위 대리는 "CC크림은 커버력이 우수하지는 않지만 생기 있는 피부를 표현해줘 BB크림의 무거운 사용감에 지친 국내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특히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베이스 기능까지 한 번에 해결해 화장 시간을 대폭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관심은 CC크림이 과연 BB크림의 아성을 넘어설 수 있느냐다.

뷰티 전문가들은 CC크림이 앞으로 새로운 '한류 화장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브랜드숍 가운데 처음 CC크림을 출시한 토니모리의 장혜니 대리는 "올해 화장품 시장의 키워드는 단연 CC크림"이라며 "출시 초기부터 반응이 뜨겁고 해외 매장에서도 공급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sjae@metroseoul.co.kr

화장품업계 완판 이끄는 스타파워에 웃음만발

'설리 베이스' '신민아 루즈' 짙게 바르고…

불황에 허덕이는 화장품업계가 스타 파워를 톡톡히 보고 있다.

에뛰드하우스는 최근 출시한 '베이비 슈 베이스'가 10만 개 완판 기록을 세웠다고 20일 밝혔다. 메이크업베이스와 프라이머의 장점만 담아 피부톤 보정과 결 정돈을 동시에 돕는 제품이다. 회사 관계자는 "얼마 전 걸그룹 f(x)의 설리가 이 제품을 사용한다고 알려진 덕분에 출시 2주 만에 초기 물량 10만 개가 다 팔렸다"고 설명했다.

신민아 립스틱으로 유명한 헤라의 루즈 홀릭 역시 출시 3주 차인 지난달 말 초도 물량이 완판됐다. 회사 측은 메인 컬러인 피치빛 핑크는 3주 만에 완판을 기록했고 연달아 코발트 핑크와 키젤리아 오렌지 등이 동났다고 전했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위너의 스타가 사용한 제품은 꼭 써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면서 "화장품 매출에서 연예인 후광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소변량 확 줄고 몸 붓고…급성 콩팥병의 신호!

이대목동병원 내달 14일 '콩팥의 날' 건강강좌 · 신장대사 이수근 진행

대한신장학회가 다음달 14일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급성 콩팥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 수칙을 마련하고, 급성 콩팥병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다음달 14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이대목동병원 강의실에서 실시되는 공개 강좌에서는 콩팥병에 대한 건강강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보다 쉽게 콩팥병에 대해 알리고자 대한신장학회 홍보대사인 이수근씨와 함께 콩팥 건강에 대한 퀴즈와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와 함께 소외지역 의료봉사를 위해 민통선 내 통일촌과 해마루촌, 대성동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콩팥질환 무료 검진·건강강좌를 경기도의료원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신장학회가 이번에 제정한 '급성 콩팥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 수칙'은 ▲아약품과 건강식품을 남용하지 않는다 ▲수분 부족과 탈수 현상을 피한다 ▲의사와 의논해 콩팥 기능을 규칙적으로 검사한다 ▲체이이 밫게 운동한다 ▲CT, MRI, 혈관 촬영 전 콩팥 기능을 확인한다 등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쉽게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는 5가지로 구성돼 있다.

급성 콩팥병은 갑자기 소변량이 줄거나 몸이 붓고 소변 색깔이 붉어지면 의심할 수 있으며 아무런 증상 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다.

한진석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은 "급성 콩팥 손상은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급성 콩팥병의 관리를 위한 5가지 생활 수칙을 잘 지키면 급성 콩팥 손상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강덕희 교수가 인공신장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달빛 샤워'로 달근달근한 추억

도심을 벗어나 밤하늘의 그윽한 별과 달빛을 따옴껏 담함하는 동호회들이 인기다. '달빛 샤워'를 기대한다면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정월 대보름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보름인 24일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전국 곳곳에서 달빛을 흠뻑 받을 정월 대보름 축제가 펼쳐진다.

삼척지역 최대의 전통 민속문화축제인 삼척 정월대보름제는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 삼척시 엑스포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 새해 소망 길놀이, 살대 세우기 등 액을 막고 복을 비는 초복 행사와 윷놀이, 디딜아질, 달집태우기, 망월놀이 등 풍성한 민속행사가 진행된다.

삼척 정월대보름제의 꽃인 전국 기줄다리기 대회는 우승 1000만원 등 총 상금 2300만원을 놓고 펼쳐진다.

광주에서는 호남지역의 대표 민속놀이인 고싸움놀이 축제 한마당이 23~24일 이틀간 광주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는 23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데 연날리기와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5인 줄다리기 등 각종 민속체험과 함께 나래현 시인으로 막을 연다.

본행사가 열리는 24일에는 고싸움놀이 리허설, 줄타기 공연에 이어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고싸움놀이 시연이 펼쳐진다.

경북 청도천 둔치에서도 오는 24일 정월 대보름 민속문화축제가 열린다. 축제에선 정월 대보름달이 뜨는 시각에 맞춰 달집에 불을 붙인다. 달집은 솔가지 250t(5t 트럭 50대분)과 볏짚 200단, 새끼 30타래, 지주목 100개가 들어가는 높이 15m, 폭 10m로 전국 최대 규모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필리핀관광청 '출첵 이벤트'

필리핀관광청이 다음달 ○일까지 필리핀관광청 네이버 공식 카페(cafe.naver.com/phitourism)에서 출첵 미션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페 가입 후 출석 체크 미션을 수행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당첨자에게는 인천~마닐라 왕복항공권, 쌤소나이트 여행용 가방, 문화상품권 2만원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페루, 세계여행지 2위 꼽혀

페루가 세계 최고의 여행지 중 하나로 꼽혔다.

20일 페루관광청에 따르면 영국의 유명 여행 전문지 원더러스트(Wanderlust)가 여행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세계 2번째 베스트 여행지로 선정됐다. 1위는 미얀마가 차지했다.

star bag

성폭행 혐의 24일 출석 통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가 24일 경찰 출석을 통보받았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9일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로 출석을 연기한 박시후에게 24일 오전 10시에 조사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다시 통지했다. 연예인 지망생 여성 A(22)씨는 최근 박시후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시후를 고소한 상태다.

'화신'으로 솔직한 입담 과시

배우 **김희선**이 특유의 톡톡 튀는 화법으로 예능 MC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19일 첫 방송된 SBS '화신 마음을 지배하는 자'에서 그는 신동엽·윤종신·이수근 틈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직설적이고 솔직한 입담을 뽐내 호평받았다. 시청률도 전작인 '강심장'과 비슷한 9%(TNmS 전국 기준)를 기록해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한국의 기자회견장에서 다시 만난 김지운 감독과 친근하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늙지 않았다…어떤 액션이든 OK

근육질 몸매로 전 세계 스크린을 호령한 할리우드 액션스타 아널드 슈워제네거(66)가 배우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21일 개봉될 김지운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작 '라스트 스탠드'로 10여 년 만에 스크린 복귀를 선언한 그는 입국 다음날인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터미네이터'의 명대사인 "아일 비 백(I'll Be Back)"을 외쳤다.

영화 '라스트 스탠드' 들고 한국 온 아널드 슈워제네거

"내가 드는 덤벨 무게보고 김지운 감독 도망쳤죠" 그의 연출스타일 잘맞아…끝인사는 아일 비 백!

▶ 배우로서 첫 내한 소감은?

▶▶ 실은 이전에도 여러 번 한국에 왔었다. 피트니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보디빌더로, 또 방송인 아내(마리아 슈라이버)와 88 서울올림픽에 동행한 적이 있다. 가장 최근인 2006년엔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격으로 방문했었다. 원래도 한국의 '빅 팬'으로 매번 올 때마다 "아일 비 백"이라고 약속했었는데, 약속을 지켜 무척 기쁘다.

▶ 이번 영화 속 캐릭터는 예전과 달리 실제 나이를 반영한 듯하다

▶▶ 극중 레이 오웬스는 말년에 고향인 시골 마을에서 일하는 보안관으로, 전직 LA 경찰이다. 슈퍼카를 타고 마을을 통과해 멕시코로 넘어가려 하는 마약상 두목과 일전을 벌이지만 나이 탓에 저울엔 싸움을 꺼리고 두려워한다. 배로 이 점이 끌렸다. 전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이야기와 캐릭터라고 판단해서다. 늘어온 영웅에 관한 솔거리이면서도 인간미와 유머가 느껴졌다.

▶ 김지운 감독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었나

▶▶ 오스트리아인과 한국인이 어떻게 의사를 주고받을지 주위에서 걱정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능력 있는 통역이 도와줬고 무엇보다 김 감독의 연출이 아주 열정적이었던 덕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제작진 가운데 가장 늦게 자고 가장 먼저 일어날 만큼 부지런한 데다, 촬영장에선 스턴트 연기까지 직접 시연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연출 스타일도 나와 잘 맞았다. 다양한 앵글과 사이즈의 촬영으로 내면의 감정을 끄집어내고 "눈으로 슬픔을 더 보여주세요"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시로 배우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캐릭터가 신선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김 감독의 공이다.

▶ 액션스타로는 적지 않은 나이다

▶▶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매일 유산소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병행한다. 운동은 내 일상생활이다. 오늘 아침에도 숙소인 호텔내 피트니스클럽에서 운동했다. 아직은 영화가 요구하는 모든 액션 연기를 소화해 낼 자신이 있다. (동석한 김 감독은 미국 촬영 당시 현지 피트니스센터에 운동하러 갔다가 슈워제네거가 드는 덤벨을 보고 기가 죽어 몰래 도망쳐 나온 적이 있다고 털어놔 웃음을 자아냈다.)

▶ 김 감독처럼 할리우드에 입성했거나 진출을 타진 중인 한국 영화인들에게 조언한다면.

▶▶ 수백만 명이 할리우드에서의 성공을 원한다. 그러나 극소수만 성공한다. 그중에는 나와 김 감독이 포함돼 있을 것이다. 확실한 목표를 가져라.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면 된다. 김 감독을 비롯한 한국 영화인들은 실력이 무척 출중하다. 어제 도착하자마자 김 감독의 단편영화 세트장에 놀러갔는데 카메라 4대로 찍고 있더라.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최첨단 시스템이었다. 할리우드는 재능 있는 영화인들을 언제나 필요로 한다. 한국 영화인들의 진출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 한국 팬들에게 한마디

▶▶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등 역사적으로 무척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빌겠다. 도전과 역경을 함께할 좋은 친구들이 미국에 많다는 건 기억해 달라. 마지막은 역시 "아일 비 백"이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디자인/양연희

7세 연상 회사원과 결혼식

쥬얼리 출신 방송인 **이지현**이 일곱 살 연상의 일반인 남자친구와 결혼한다.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엠은 20일 "이지현이 다음 달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다"면서 "예비신랑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가을 한 골프 모임에서 만나 6개월여 동안 사랑을 키워오다 결실을 맺게 됐다.

가수 컴백 '리플렉션' 발표

뮤지컬 스타 **옥주현**이 28일 새 앨범을 발표하고 가수 활동을 재개한다.

새 미니앨범 '리플렉션'에는 신곡 3곡을 비롯해 총 6곡이 수록된다. 작곡가 정석원과 신재홍, 작사가 김이나 등이 참여했다. 옥주현 측은 "수록곡에는 사랑, 자아, 가족 등 다양한 주제가 담겼다.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감정을 음악 안에 녹였다"고 밝혔다.

'키즈 초이스 어워드' 후보 싸이의 '강남스타일' 올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후보에 올랐다.

미국 어린이 엔터테인먼트 채널 니켈로디언이 다음달 23일 개최하는 '키즈 초이스 어워드'에서 '강남스타일'은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칼리 래 젭슨, 인기 아이돌 그룹 원 디렉션 등의 히트곡과 '가장 좋아하는 노래'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인다.

싸이는 또 '베스트 아시안 스타' 부문 후보에도 이름을 올려 필리핀의 가수 사라 제로니모, 말레이시아의 가수 실리 암자, 슈퍼주니어 전 멤버 한경과 경쟁한다.

'키즈 초이스 어워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임에도 할리우드의 톱스타와 세계적인 가수들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행사로 주목받아 왔다. 올해는 할리우드 배우 조시 더하멜이 진행하고 조니 뎁, 크리스틴 스튜어트, 아델, 저스틴 비버 등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유순호기자

10가지 빛깔 싱글 맛봐요

티아라 '바니스타'로 일본 먼저 공략…토끼춤도 선보여

잡음이 많던 여성 그룹 티아라가 국내 컴백을 미루고 일본 공략에 집중한다.

티아라는 다음달 20일 일본에서 새 싱글 '바니스타'를 발표한다. 앨범 발매일까지 1개월이 남았지만 현지 프로모션의 활동 준비를 위해 20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티아라는 지난해 여름 멤버 들의 '왕따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은정이 드라마 갑재 히치 논란에 휩싸이는 등 팀 결성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9월 '섹시 러브' 활동을 끝으로 공백기를 보낸 이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팀 재건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이번 앨범의 구성과 활동 방식에서 차별화를 두는 등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은정·지연·효민·소연 이름 보람·큐리 등 멤버를 세 팀으로 나눠 세 장의 유닛 앨범을 발표하고 7명의 멤버가 각자 솔로 음반을 내는 등 총 10가지 버전으로 앨범을 출시한다. 이는 일본 음악 시장에서도 전례가 없는 활동 방식으로 음반 발매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바니스타'는 외로움을 타는 여성을 의미하는 '바니스타일'을 빗대어 표현한 곡이다. 2011년 9월 일본 데뷔곡인 '보핍보핍' 이 고양이 댄스를 앞세워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이번에는 토끼의 움직임을 응용한 '토끼춤'을 선보일 계획이다.

티아라는 앨범 출시와 동시에 다음달 20일 삿포로를 시작으로 오사카, 나고야 등 15개 지역을 돌며 공연한다. 효민은 일본 영화 '징크스' 촬영을 동시에 진행한다.

/유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보코' 이소정 걸그룹 데뷔 권리세와 같은 팀서 호흡

엠넷 '보이스 코리아'와 MBC '위대한 탄생' 출신 소녀들이 걸그룹을 결성한다.

소속사플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20일 "'보이스 코리아' 시즌 1 출신 이소정이 권리세의 걸그룹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권리세는 '위대한 탄생' 시즌 1 생방송 진출자로 앞서 키이스트와 전속계약을 완료한 뒤 플라리스로 이적했다.

이날 소속사가 공개한 사진에서 이소정은 옅은 스모키 메이크업에 금발로 염색한 파격적인 모습으로 방송 출연 당시 이미지를 완전히 지웠다.

이들은 다음달 데뷔를 목표로 연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권보람기자 kwon@

이 얼굴에 한류스타 처음에는 두려웠죠

영화 '남자사용설명서' 오정세

◆그의 재발견 … 코믹연기도 목소리도 '일품'

오정세는 얼마 전 '남자사용설명서' 시사회가 끝난 뒤 열린 뒤풀이 술자리에서 선배 김희하로부터 기분 좋은 충고, 아니 덕담 한마디를 들었다. "박하 형님에 소주 한 잔을 건네시며 '넌 이제 겸손해질 일만 남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좀 봄 바를 몰라 혼났습니다."

14일 개봉한 이 영화에서 그는 오만방자한 한류스타 이승재를 연기했다. 길고 긴 무명 시절을 보상받으려는 듯 CF 조감독 최보나(이시영)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대놓고 잘난 척을 일삼지만, 알고 보면 할사랑에 굶수린 캐릭터를 맡아 극중 웃음의 대부분을 책임진다.

처음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을 제의받았을 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영화계 관계자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뿌듯함도 잠시,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커플즈'에서 처음 만나 친해진 시영이에게는 미안하더군요. 저 말고도 좋은 배우가 많은데, 상대역으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솔직히 제 얼굴이 한류스타 캐릭터에 어울리진 않잖아요. 하하하."

그러나 이 같은 우려와 달리, 관객들에게 '발견의 기쁨'을 제공한다. 하룻밤을 함께 보낸 보나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들이대다가 신나게 얻어맞고, 발가벗은 채 호텔 정원을 가로질러 도망가는 장면은 배꼽을 빼놓는다. 또 가늘면서도 청아한 음색은 보는 이들의 귀까지 즐겁게 한다.

◆"연예인으로만 알려지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누비고 있지만, 연기에 입문한 지 올해로 벌써 16년째다. 1996년 개봉됐던 영화 '아버지'에서 대사 한 마디뿐인 손님 역으로 출발했다.

예전을 떠올리면 드라마 '보고싶다'로 친해진 진짜(?) 한류스타 박유천과 호형호제하고, 연출자와 애드리브를 자유롭게 상의할 수 있는 요즘이 자랑스럽고 즐겁기만 하다.

앞서 '체체한 로맨스'와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의 목소리 연기 등을 통해 그의 진가를 일찌감치 파악한 일부 팬들은 "우리만 알고 있던 보물을 이젠 남들에게 빼앗긴 것 같다"며 최근의 인지도 상승을 오히려 슬퍼하고 있는 상황. 오정세는 이들을 달래느라 바빠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시지 않는다.

오정세는 "배우로서 대중에게 칭찬받고 동료에게 인정받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만, 연예인으로만 알려지고 싶지는 않은 게 솔직한 마음"이라며 "나나 아내나 그저 지금처럼만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박한 속내를 털어놨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사진/손제훈(라운드테이블)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2 Come in, please 부탁과 명령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사로잡습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들어오세요.
문을 닫아주세요.
문을 열지 마.
이제 읽어보세요.
이제 시작할 시간이에요.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Come in,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Don't open the door.
Now read, please.
It's time to begin.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It's time to 시작해요, Harry.
B Yes, Mr. Green.

정답 begin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Come in / Stand up, please.
2 Don't open / close the door, Bill.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전치사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of help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Your feedback is of help. 당신의 의견이 도움이 됩니다
on behalf of	~을 대표해, 대신해	on behalf of the company 회사를 대표해
out of order	고장 난	The elevator is currently out of order. 그 엘리베이터는 현재 고장 났다.
to one's surprise	~이 놀랍게도	much to their surprise 그들에게 크게 놀랍게도
with ease	쉽게, 용이하게	The parts can be assembled with ease. 그 부품들은 쉽게 조립될 수 있다
without one's consent	~의 동의[승낙] 없이	without the company's written consent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6 Express an opinion

I agree that it is necessary to learn physical education in high school.

I have **several reasons** to support my opinion.

Most of all, they can learn about the teamwork.

[좋은 예] Most of all, they can learn about the teamwork.

[나쁜 예] Most of all, when they play team sports they can learn how to help each other and cooperate with the team members.

"류현진 제구력·체인지업 최고!"

피칭 경험한 타자들 극찬

괴물투수 류현진(26·LA 다저스)이 타자를 세워두고 던지는 라이브 피칭에서도 호투를 이어갔다.

류현진은 20일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카멜백 랜치 스타디움에서 계속된 스프링캠프에서 잭 그레인키와 2이닝씩 10명의 타자를 상대로 라이브 피칭을 펼쳤다.

25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시범경기를 앞둔 류현진은 15일과 17일 불펜 투구에 이어 이날 40개의 공을 던지며 페이스를 끌어올렸다.

류현진의 공을 접한 타자들은 "스트라이크존 내·외각을 파고드는 직구 제구가 좋았다. 특히 체인지업이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 역시 "젊은 데이비드 웰스를 닮았다. 좋은 제구력을 지녔다"고 칭찬했다.

웰스는 덩치가 큰 선수로 메이저리그에서 21년간 통산 239승157패, 방어율 4.13, 탈삼진 2201개를 기록하고 2007년 은퇴했다.

한편 류현진은 다저스의 전설로 불리는 '황금 좌완' 샌디 쿠팩스로부터 커브 던지는 법을 배웠다. 류현진은 "쿠팩스 같은 선수에게 배우기를 바랐다"며 "커브 그립을 잡을 때 손가락으로 공을 깊숙이 잡도록 조언받았는데 익숙해지려면 좀 더 던져봐야 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롤러 여제' 아름다운 도전

우효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변신 3000m 아쉽게 실격

'롤러 여제' 우효숙이 20일 서울 공릉동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3000m에 출전해 아름다운 역주를 펼쳤다.

롤러스피드스케이팅으로 한때 세계를 평정했던 그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출전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본격적으로 스케이트를 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뛰어난 지구력과 운동감각으로 빙상 선수들과의 기록 차이를 빠르게 줄여가고 있다.

우효숙은 이날 결승선을 4분29초77로 통과했지만 라인 침범으로 아쉽게 실격 처리됐다.

한국 남녀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모태범 이상화는 전날 500m 금메달에 이어 1000m에서도 나란히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해 2관왕에 올랐다. /김민준기자

우효숙이 20일 열린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3000m에 출전해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